

## Exploring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establishing a DRI-like process for bioactives

Joanne R. Lupton • Stephanie A. Atkinson • Namsoo Chang • Cesar G. Fraga •  
Joseph Levy • Mark Messina • David P. Richardson • Ben van Ommen •  
Yuexin Yang • James C. Griffiths • John Hathcock

Eur J Nutr

DOI 10.1007/s00394-014-0666-3

**생리활성물질 권장 섭취량 정립의 혜택과 문제점 탐색.**

**초록:** 생리활성물질이란 “식품 또는 영양제에 함유된 성분으로, 신체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이외에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21]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필수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처럼 전통적인 영양소는 권장 섭취량(DRI)이 제시되지만, 생리활성물질에는 그러한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특정 생리활성물질군은 섭취시 건강 상태가 증진되거나 질병 위험이 감소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생리활성물질과 질병 위험과의 관련성 연구는 정부기관, 학술 연구소, 식약 제조업체의 후원을 받아 날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구매하더라도, 식품의 혜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또는 그런 건강상 혜택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조할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리활성물질, 연령에 따른 정성적 영양소 권장량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생리활성물질 섭취 권장량을 제시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권장량을 정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탐색하였습니다.

**키워드:** 생리활성물질, 영양 권장량, 비필수영양소, 적정 섭취량